



밤 벚꽃 아래 분수쇼...운천저수지의 봄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주변을 둘러싼 벚꽃이 만개하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밤 화사한 벚꽃 가지가 드리워진 운천저수지에서 형형색색의 빛깔을 뽐내며 분수 쇼가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 박빙 文-安 ‘대형 공약’ 띄우나

Ⓢ ‘선택 2017’ 대선 D-28

5·9 장미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빙의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호남 민심 쟁취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밀리는 것은 곧 대선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안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회심의 카드 제시를 통해 막판 승기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카드로는 광주·전남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꼽히고 있다.

그동안 양 후보 진영에서는 경쟁적으로 각종 공약을 제시했으나 기존에 거론됐던 현안 사업들의 재탕 등에 그쳐 미래 비전 제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호남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광주공항 이전부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검토
국민의당, 대형 프로젝트 발굴·호남인사 중용 방안 고심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광주 문화수도’ 공약과 같은 발상의 전환과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광주공항 이전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공약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현실화 된다면 광주는 물론 호남 경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 공약으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S-프로젝트’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 프로젝트는 ‘서남해안 종합발전계획’으로 총 22조4000억원을 투입, 무안·목포·신안 지역을 환황해권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문재인 후보가 이어간다는 컨셉이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선대위에서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광주·전남 등 호남 맞춤형 대형 프로젝트 공약 발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진영에서도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견고한 상승세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을 화두로 그동안 제시했던 공약의 업그레이드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비해 공약 경쟁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호남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 진영에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취한데다 보수와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 호남 공약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어떠한 대형 공약 제시로 ‘호남 진정성’을 담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대선 막판까지 호남 민심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백병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호남 인사 소외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예비 내각을 고리로 호남 인사 중용에 대한 입장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호남 경제 복원을 고리로 하는 미래 비전과 진정성 경쟁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한 후보로 지지를 몰아줬다”며 “현재의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심의 흐름은 결국 호남의 미래와 진정성을 제시하는 후보로 무게 추가 급격하게 기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월호 3주기 앞두고 추모 분위기 고조

16일까지 추모기간 행사 다채

세월호 참사 발생 3주년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세월호 침몰 초기 수습 활동이 이뤄졌던 진도군 팽목항에서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월호 희생자 3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진도군이 주최하고 세월호참사 진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일부 유가족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국민의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이동진 진도군수, 지역 주민, 성직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추모사 낭독과 세월호 가족의 추모 답사, 진혼무, 찻집, 추모종 달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부산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취지에서 ‘세월호 추모 기록전시회’를 시작했다. 또 광주·전남 지역 각 학교에서는 정상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인 추모행사를 갖도록 했다.

전주교 광주대교구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3년 미사’를 목포 신항에서 봉헌한다.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열리는 이날 미사는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며 봉헌된다.

미수습자를 찾는 수색활동이 벌어지는 목포신항에서는 대규모 추모 행사를 자체하고 대신 종교행사만 조용히 치러진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현재까지 16일 추모 행사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15일 오후 박근혜전직 대통령 비서관행동이 촛불집회를 열고 미수습자의 조속한 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중된 경기 안산과 인천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린다. 16일 오후 3시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는 참사 3주기 추모제인 ‘기억식’이 열린다. 참석자들은 추모 사이렌에 맞춰 3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묵념하고 추도사, 추모 영상, 공연, 분향 및 헌화 등을 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도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가 열리는 등 화랑유원지 공연장과 분향소 주변에서 추모 작품전시, 퍼포먼스, 예술제, 종교행사 등이 열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감사원, 대선 앞두고 공직기강 감찰...역대 최대 130명 투입

감사원은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에 대한 집중감찰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5면〉

감사원은 10일 특별조사국, 지방행정 감사1·2국 합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공직감찰본부장을 단장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3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 감찰대상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지부동 행위 ▲복무기강 해이 등 크게 3가지다. 감사원은 먼저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 불법 유출, SNS를 통

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 표시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미준수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도 집중감찰 대상이다. 고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직이나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 정보 수집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변형 현위치 거치 ▶6면

新 湖南誌 - 김제 벽골제 ▶18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F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